

김예슬 | 책임연구원 (제 7029)

- 주요 뉴스: 중국 인민은행 추가 유동성 지원 위해 1.4조 위안 규모의 역레포 매입
 - 미국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주택 매물 공급 증가로 상승세 둔화
 - 중국 시진핑 주석, '24년 경제성장률 5% 내외 성장 목표 달성 전망
 - IMF, 아르헨티나 추가 금융지원 협상 위해 기존 지원 평가 예정. 외환통제 해제 기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말 거래량 감소 속 연말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

주가 하락[-0.4%],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연말 차익실현 매물 등으로 하락 마감
 유로 Stoxx600지수는 거래량 감소 속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으로 상승 압력 지속되어 강세
 유로화 가치는 0.5% 하락, 엔화 가치는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말 자산 리밸런싱 등으로 상승
 독일은 신년 연휴로 휴장

※ 원/달러 환율(주간) 1.76% 하락, 한국 CDS 보합

		12/30일	12/31일	전일대비			12/30일	12/3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906.9	5,881.6	-0.43%	국채 금리 10y	미국	4.53%	4.57%	+4bp
	유럽	504.85	507.62	+0.55%		독일	2.37%	휴장	-
	중국	3,407.3	3,351.8	-1.66%		영국	4.61%	4.57%	-4bp
	일본	39,895	휴장	-	CDS 5y	한국	38bp	38bp	+0bp
	한국	2,399.5	휴장	-		중국	65bp	66bp	+1bp
					위험 지표	EMBI+	373	364	+9bp
환율	달러지수	108.13	108.48	+0.33%		VIX	17.4	17.35	+0.29%
	유로화	1.0407	1.0354	-0.51%		WTI유	70.99	71.72	+1.02%
	엔화	156.84	157.20	-0.23%	원자재	구리	409.3	402.7	-1.62%
	위안화	7.2993	7.2993	0.00%		금	2,606.5	2,624.5	+0.69%
	원화	1,472.3	휴장	-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중국 인민은행, 추가 유동성 지원 위해 1.4조 위안 규모의 역레포 매입

- 인민은행은 은행시스템의 충분한 유동성 유지를 위해 1.4조 위안(\$2,330억)의 3개월물, 6개월물 역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발표. 이는 10월 두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8천억, 5천억위안)와 12월 국채 순매수(3천억위안)에 이은 추가 조치
- 금번 조치는 무역긴장 고조 위협에 직면한 중국 경제를 위해 '적절한 완화'를 약속한 인민은행의 완화적 기조를 시사.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미국 관세 및 디플레이션 압력 지속 위험을 고려하여 은행시스템의 적절한 현금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역레포 및 국채 매입을 계속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한편, 최근 국채수익률이 당국의 대규모 국채 매입 및 추가 양적완화 전망 증대 영향으로 하락한 가운데, 인민은행 추가 유동성 조치 발표 이후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사상 최저치인 1.67%를 기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국채 발행량 증가, 달러의 시장조성 역할 제한 및 취약성 노출 위험 증대

- Treasury Market Practices Group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채 발행량은 3배 증가했으며 향후 10년간 국채 발행량은 50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전성 규제 강화로 달러의 시장조성 역할이 제한되면서 초기 스트레스 조짐
- 최근 단기 자금조달 시장에서는 연말 오버나이트 금리가 급등하는 등 일부 스트레스 징후를 발신. 규제당국은 시장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 JPMorgan의 다이먼은 '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제로 달러의 국채 보유 비용 상승, 시장 조성 능력이 위축되어 변동성 확대 시 유동성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속 경고. BOA도 국채 발행 증가, 시장의 구조적 제약으로 금융시스템 민첩성은 저하되고 시장이 무질서해질 가능성이 증대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주택 매물 공급 증가로 상승세 둔화

- 10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의 상승률은 전년대비 3.6% 기록. 이는 전월의 전년대비 상승률인 3.9%에 비해 둔화된 수치로 모기지 대출비용 상승과 함께 주택매물 공급 증가로 인한 주택 거래 협상력 개선에 기인

■ 중국 시진핑 주석, '24년 경제성장률 5% 내외 성장 목표 달성 전망

- 시진핑 주석은 신년 연설에서 중국 경제가 직면한 대외 불확실성, 신성장 동력 전환 등 도전을 인정하면서 '24.9월 이후 경기부양책이 주요 지역 리스크 해결, 고용 및 물가 안정에 기여했으며, 지난 1년의 경제 불확실성은 종식됐다고 평가. '24년 경제성장률은 당국의 공식 성장목표인 5% 내외를 달성할 전망
- '25년에도 지속적인 경제 지원을 시사하며 정책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 실행을 촉구. 14차 5개년 계획의 완성과 시행, 대만에 대한 입장도 재차 강조

■ IMF, 아르헨티나 추가 금융지원 협상 위해 기존 지원 평가 예정. 외환 통제 해제 기대

- IMF는 최대 채무국 아르헨티나의 추가 금융지원을 협상하기 위해 현재 지원 중인 440억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공여 프로그램의 사후평가를 1월중 검토할 예정
- 밀레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긴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IMF에 추가 금융지원 협상 추진. 이를 통해 올해 외환 통제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기대

■ 중국 12월 국가통계국 PMI, 전월대비 개선되며 경기회복세 지속 시사

- 제조업 PMI는 50.1로 전월 50.3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비제조업 PMI가 52.2로 전월 50.0 대비 크게 개선되며 3월 이후 최고치 기록. 경제 하방요인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 및 인민은행의 부양조치들에 힘입어 개선

■ 유럽 천연가스 가격, 우크라이나 경유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으로 급등세 지속

- 새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주요 가스 운송 경로인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이 가시화되며 1년래 최고치인 50유로까지 급등. 벤치마크 천연가스 가격은 올해 들어 55% 올라 '21년 이후 연간 최대 상승폭 기록 예상
- 모스크바-키이우의 5년 가스 운송 계약은 '24년 만료. 유럽은 에너지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으며, 비축된 가스를 평소보다 빠르게 소진하고 있어 향후 가스 공급의 영구 중단 및 유럽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증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달러스 연은 서비스업지수 / 한국 12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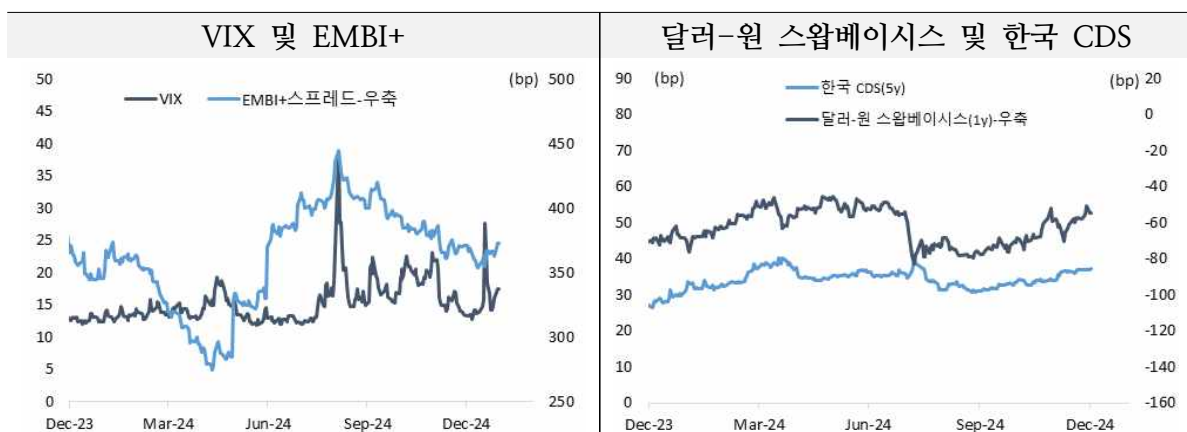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55, E-mail yskim@kcif.or.kr